

최근 한-러시아 교역 동향과 시사점

- 2024년 1분기 한-러 교역액은 전년동기대비 25.5% 감소한 31억 6,181만 달러를 기록
- 동 기간 한국의 대러 수출액과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11.7%, 34.4% 감소
 - △(수출품목) 운반하역기계(+324.4%), 승용차(-28.6%), 합성수지(+3.1%), 축전지(+470.8%), 화장품(-14.8%), 자동차부품(-45.8%), 건설중장비(-56.7%) 등 △(수입품목) 유연탄(-57.3%), 천연가스(-9.0%), 알루미늄괴및스크랩(72.5%) 등¹⁾
 - 2023년 한-러 교역액은 2022년 2월 러-우 전쟁 발발에 따른 대러 제재 심화로 150억 2,542만 달러에 그치며 크게 하락²⁾
 - △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(6.4억 달러), 자동차 부품(3.6억 달러) 수출이 급감 △주요 수입품목은 유연탄(39.7억 달러), 천연가스(10.6억 달러) 등이며, 원유는 2023년부터 100% 도입 중단
 - * 한국은 2023년 4월부터 5만 달러 이상의 승용차를 대러 수출통제 물품에 포함시킨 것에 이어, 같은 해 12월에는 그 기준을 배기량 2000cc 초과로 변경하겠다는 행정예고를 공지(2024.2.24일자로 시행).
 - * 서방의 대러 제재(석탄 수입 금지)에 따른 러시아산 석탄 가격 하락 영향으로 유연탄 수입액이 2022년 50.4억 달러로 전년대비 128.9% 증가했으며, 2023년에는 전년대비 21.3% 감소했으나 여전히 큰 규모를 기록³⁾
 - 한편, 양국 교역 규모는 2021년 273억 3,623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⁴⁾
 - * △승용차(25.5억 달러) 및 자동차 부품(15.1억 달러)이 수출의 41% 차지 △주요 수입품목은 나프타(43.8억 달러), 원유(42.7억 달러), 유연탄(22억 달러), 천연가스(17.2억 달러) 등

표 1.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 동향

(단위: 천 달러, %)

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 1분기
수출	7,774,133 (6.2)	6,899,968 (-11.2)	9,979,539 (44.6)	6,328,173 (-36.6)	6,133,435 (-3.1)	1,471,660 (-11.7)
수입	14,566,507 (-16.8)	10,630,194 (-27.0)	17,356,692 (63.3)	14,817,362 (-14.6)	8,891,986 (-40.0)	1,690,152 (-34.4)
무역수지	-6,792,374	-3,730,226	-7,377,153	-8,489,189	-2,758,551	-218,492
교역규모	22,340,640	17,530,162	27,336,231	21,145,535	15,025,421	3,161,812

주: ()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.

자료: 한국무역협회(검색일: 2024. 5. 29).

- 1) 수출액, 수입액 순임. ()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.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이 수출의 15.8% 차지. MTI 코드 기준.
- 2) 2023년 한국 전체 교역액에서 대러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.18%
- 3) 향후 유연탄 수입액 관련 다음 기사 참고. 「한국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, 러시아 석탄 수입 안한다」(2023. 9. 13), 더 구루(검색일: 2024. 5. 29).
- 4) 2021년 한국 전체 교역액에서 대러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.17%

- 러시아는 2021년 한국의 12위 수출 시장이었으나, 2022~2023년 21위, 2024년 1분기 기준 22위 시장으로 위상이 하락
 - 2024년 1분기 러시아의 수출 및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1%, 43%에 달하는 상황
 - 동 기간 러시아는 중국의 7위 수출 시장(244.3억 달러)이며,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(8.6억 달러) 및 자동차 부품(5.4억 달러), 통신기기(9.4억 달러), 자동자료처리기계(6.5억 달러) 등⁵⁾
 - * 2023년 기준 러시아는 중국의 7위 수출 시장(1,114.4억 달러)으로, 승용차(116.6억 달러) 및 자동차 부품(30.9억 달러), 통신기기(41.8억 달러), 자동자료처리기계(29.2억 달러) 등이 주요 수출품목⁶⁾
 - * 참고로 2021년 기준 러시아는 중국의 13위 수출 시장(675.9억 달러)으로, 통신기기(53.9억 달러), 자동자료처리기계(33억 달러), 승용차(15.2억 달러) 및 자동차 부품(14.2억 달러) 등이 주요 수출품목
 - 한국의 대러 수출에서 가장 타격이 큰 승용차 수출 부진의 빈자리를 중국이 대체
 - 2023년 러시아 승용차 시장의 47%를 중국 브랜드가 차지(Haval, Chery, Geely, Changan 등)
 - * 2021년 8월 기준 한국 현대차·기아가 러시아 승용차 시장 점유율 1위(28.7%)를 기록한 바 있음.
- 전쟁과 제재 국면 심화 및 장기화로 한-러 교역 환경이 악화되면서 현 상황이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고착화될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가 확대⁷⁾
 - 러시아 승용차 시장뿐 아니라 가전제품 시장도 중국, 튀르키예 업체들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
 - 이와 같이 큰 변화를 맞이한 경쟁구도가 이미 정착화 단계에 들어섰으며, 한동안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가 중론

강부균 전문연구원

5) 2024년 1분기 기준 중국의 대러 수출액은 244억 3,402만 달러, 수입액은 321억 4,641만 달러. 한국무역협회(검색 일:2024. 5. 29); HS 코드 기준.

6) 2023년 중국의 대러 수입액은 1,276억 2,749만 달러로, 총 중-러 교역액이 약 2,4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

7) 「러시아 가전제품 시장, 중국 및 튀르키예 제품이 급부상」 (2024. 4. 4), KOTRA.